

미래에 활용되어야 할 선인들의 기술 -미장이(일본벽)-



최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책으로 화제가 되는 'SDGs(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실은 이 중요문화재 보존 수리라는 분야에서도 모범이라 할 수 있는 건축 기술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흙이나 지푸라기 등의 자연적 소재를 사용해서 벽면을 바르는 '미장이' 기술입니다.

예로부터 일본의 목조건축은 그 지역에 자라는 자연적 소재를 사용해 부재 등도 잘 재활용하면서 건물을 만들어 왔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소중히 사용하는 선인의 자세를 보노라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배울 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COLUM】 여러 풍경이나 채색을 볼 수 있는 미장의의 작업



【벽 흙의 재활용】

옛날에는 건물의 토벽을 수리할 때는 원래 사용했던 벽 흙을 재활용해 왔으며 이번 보존 수리도 그 방법으로 복원하고 있습니다. 해체한 흙을 모아서 새로운 지푸라기나 모래, 물을 더해 반죽해서 발효시킵니다. 그것을 수개월마다 반복해서 충분히 발효해 흙에 찰기가 생기면 그제서야 벽 흙으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쓰카베 벽-흙으로 만드는 채색-】

구 스즈키 가문 저택 건물에서 볼 수 있는 오쓰카베 벽. 별칭으로 이로우쓰로도 불리고 색토에 소량의 석회와 여물(벽 흙이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는 이음재)를 섞어 반죽한 것을 벽에 바릅니다.

오쓰카베 벽에 사용되는 색토는 산지나 채취한 지층 연대에 따라 다른 색감이 납니다. 이번 보존 수리에서는 현존하는 벽면을 상세히 조사한 다음 현재 입수 가능한 전국 각지의 색토를 사용하여 조합하고 원형의 색감에 다가가는 복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